

“정부, 특별시 20조 지원 기관·사업 이관 포함”

闊, 시민과의 대화서 정부 입장 설명

‘전역 국고’ 기대와 배치 반발 불가피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금으로 약속한 5년간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국고 전역 지원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 국비 보조사업까지 포함·지원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에서 전역 국고 지원을 요구해

왔던 만큼 향후 논란과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는 25일 노동 분야 시민과의 대화에서 “20조원 정부 지원금이 그대로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민 당선자는 “사업에 불이고, 실제 준중(기준 예산 외 추가 지원)하는 것은 못 미칠 것이다”며 “당시 정부 발표 때 연간 최고 5조원까지라

고 했는데 최고라는 말에 함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24일) 저녁에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관련 회의가 있어 재정 지원을 건의했는데, ‘통합시 지원방안을 막바지 마련 중인데 적정 시점에 설명하겠다. 다만 정부가 최대 5조원을 반복 이야기했고 거기에는 기관·사업 이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민 당선자는 “국고로만 20조원을 중앙정부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동 대응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 동안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전남도·광주시 등 지역사회에서는 전역 국고로 현금을 지원하는 ‘순중 재원’ 방식 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요구해왔다. 민 당선자 역시 20조원의 인센티브를 ‘미래 산업 종자돈’으로 투입하겠다고 국고 지원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민 당선자의 발언을 통해 정부가 기존 국비 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에 포함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인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번은진 기자

민형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노동존중 도시 만들 것”

노동 분야 특별시민과의 대화

노동계·플랫폼·이주노동자 등 200여명

AI시대 고용 변화 대응 방안 등 논의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25일 광주 노동성장지원센터에서 노동 분야 ‘특별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산업전환 시대에 필요한 특별시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시민 민형배가 특별시민에게 듣습니다’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를 비롯해 플랫폼·특수고용·제조·운수 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산업전환 시대 노동의 미래와 특별시 노동정책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민형배 당선자가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에 답했고, 박준철 노동특보와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이준상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장도 함께 답변에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AI·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노동국 설치와 관련한 노동행정 체계 구축, 산업현장 안전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등 통합특별시가 우선 해결해야 할 노동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는 지역 산업과 농촌을 유지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건강권 보장과 의료통역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남지부 관계자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쉽지는 단순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가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노동성장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특별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전기획위 제공>

휴게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이주노동자 쉼터 확충과 노동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노동계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특별시 조직에 노동국을 설치하고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의 고용안정, 돌봄노동 처우 개선,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 확대, 원·하청 노동환경 개선, 노동인권 교육 강화, 노동자의 정책 참여 확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당선자는 “특별시의 성장은 결국 사람의 성장이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노동이 있다”며 “노동전담 조직 설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사업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 당선자는 “정책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나온 제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통합 특별시 노동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노동존중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특별시민이 직접 문화재단 대표 선임

민형배 인수위, 공론장 열어 의견 수렴

7월1일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재단 대표와 조직 운영을 시민이 결정하기 위한 첫 공론의 장이 25일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센터에서 열렸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문화관공위원회는 이날 문화재단 직원과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단, 시민이 결정합니다’를 주제로 시민 공론장을 열었다.

민형배 당선자는 이날 “앞으로 전남문화재단

과 광주문화재단 운영 대표자 선정은 제가 결정하지 않겠다. (시민)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며 “법에서 어긋나서는 안된다. 조례나 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 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눠 문화기관장 선임 방식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는 이날 논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고민을 내면 문화기관 혁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민이 직접 대표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재·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闊인수위 “임기 규정 없는 기관장 지속 근무”

통합기관장 임명 때까지 직무 수행 방침

광주시장 임기 일치 기관장은 30일 종료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자 인수위는 25일 “임기 규정이 없는 기관장은 새 통합기관장 선임 전까지 임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나주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임기 종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은 통합 기관장을 임명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김경정 광주시장과 임기가 일치하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해당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자로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광주와 전남 산하 공공기관 역시 통합특별시 체계와 맞게 새롭게 개편되는 만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도 새로운 체계에 맞추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공단 4개, 출연

기관 15개 등 19개이며 이 가운데 조례에 따라 시장과 임기가 일치하는 기관은 11개다. 광주도 시공사·교통공사·관광공사·환경공단 등 임기 일치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8개 기관장의 임기는 아직 남아있다.

전남도는 공사 1개, 출연기관 22개 등 23개인데 전남지사와 임기를 일치하는 대상이 없다. /김재정 기자

▶1면 ‘출전 끝 충격패’서 계속

출전 끝에 전반을 마친 홍명보호는 후반 손흥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투입해 반전을 노렸지만 오히려 후반 18분 남아공의 날카로운 역습에 선제골을 내줬다.

후반 20분 수비의 핵심 김민재 대신 박진섭이 30분에는 오히려 대신 조규성을 투입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끝내 남아공의 수비벽을 뚫지 못했다.

홍명보호는 후반 시간 옌스 카스트로프의 크로스를 박지성이 머리로 연결하려 했지만 골키퍼 정명호로 향하면서 마지막 기회도 살리지 못하며 충격적인 패배를 떠안았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시세반값 초급매 물건들입니다]

- 유동로타리 35미터대로변코너 꼬마빌딩/상속분 땡처리 주차4대/매2억5,900(미니커피,제과,꽃집,선물코너최적)
- 유동 모텔5층건물 룠20개주차4 급매3억2,000(사무실용도최적)
- 송정동 역출구150미터 초역세권 상업지 2차선전 대106평 평당300총가3억1,800(구옥있음)식당,사육,다가구용최적
- 광주역대로변 광장코너 다이아몬드 명93평 급매11억
- 매곡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대로변 코너 대311평 급매평당650
- 북동 대로변코너 횡단보도앞 상업지대188평 5층빌딩 감정가35억 급처분가 29억/재개발입주권3개는 덤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쌍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교환]
상가 모텔 주택 땅 교환합시다(웃돈도 줍니다)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